



새만금고용특구 일자리지원단 개소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군산시>

“전북 생활인구 유입 지방소멸 대응”

전북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회의 개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 등 논의
시군별 조례 따라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 정기 공유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방안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에 대한 '2025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를 도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회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강화됐으며, 도와 함께 각 시·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전북자치도와 11개 인구감소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회의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인구청년정책과장, 도 실국 주무과장 및 11개 시군의 인구·경제·복지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소속 연구진이 함께해 정책적 분석과 제언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가 '생활인구' 개념과 관련한 전북의 실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거주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하고, 시군별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군이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유입 모델을 발굴하고, 도가 이를 평가·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도는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유입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회의를 통해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2026년에는 도(광역계정)에 193억 원이 정액 배분되고, 시군(기초계정)에는 성과에 따

라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광역계정 사업의 성과 재점검을 통해 내년도 투자계획을 재정비하고, 기초계정의 기금 확보를 위해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단은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평가 기준에 맞춘 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시군별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각 시군은 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도는 시군 간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인구활력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연계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성과 분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도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문제는 단기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 과제”라며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인구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지원단’ 뒀다

맞춤형 취업 연계
지역 ‘미래산업 일자리’ 거점 본격 가동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인력수급·고용서비스 제공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달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2층에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우민 시의회 의장,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새만금 내 민간투자 유치에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

의 고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소식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신성장 미래산업 분야 입주(예정) 기업의 적기 인력수급 및 고용 서비스 제공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 촉진 상담 및 복리후생 지원 △직업훈련, 인력양성기관 매칭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새만금은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 조성지역이다. 따라서 독립된 경제권역으로서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 전략

과 실행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앞으로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업 수요에 맞는 노동력 확보를 우선 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설립은 새만금 고용특구 내 입주기업들의 고용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새만금청·도·군산해수청,
크루즈 터미널·CIQ 논의
글로벌 관광거점 도약 기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전담팀(TFT) 회의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수산청이 참여해 새만금 크루즈 인프라(기반 시설) 사업 추진과 세관·출입국심사·검역(이하 CIQ)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이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 하

기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과 CIQ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 크루즈 터미널 조성계획, CIQ 운영체계 구축 방안, 국내외 크루즈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원활하고 신속한 입출국 절차와 통관을 위한 CIQ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방안이 강조됐다. 또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전담팀(TFT) 회의를 통해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정책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로 예상된다.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프라(기반 시설)를 강화하고, 국내외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행정안전부

완주군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의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와 담례품을 드립니다.

기부한도액

인당 연간 500만 원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담례품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50 만원까지

기부방법 (2023.1.1~)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기부

지역특산물 구입

기부자

지자체

지역생산자

세액공제, 담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공급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kakao 채널

완주고향사랑

완주고향사랑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팀 063-290-2391 ~ 2392

전북자치도, 금융특화도시 지정 전략 공유

금융산업 발전 간담회 NPS 포럼·지니포럼 연계 금융 네트워크 주력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및 도내 이전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지난달 31일 전북 혁신도시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도약 전략을 공유했으며, 이전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SSBT은행, 프랭클린템플턴, 하나펀드 서비스, 코람코 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간담회에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과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오는 5월 개최되는 제2회 NPS 포럼 및 9월 제6회 지니포럼 등 금융산업 관련 주요 행사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지속 추진해온 성과를 설명하며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금융특화도시 브랜드 구축 ▲이전 금융기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계획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 SSBT은행과 BNY Mellon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지난해 블랙스톤, 하인즈 전주사무소, 올해 코람코 자산운용 및 티시먼스 파이어 등 총 13개 금융기관을 유치하며 금융특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지난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 특례를 반영,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이전 금융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NPS 포럼·지니포럼과 연계한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프랭클린템플턴 전주사무소 전용배 감사는 이날 자리에서 "전북자치도의 각별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및 도내 이전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지난달 31일 전북 혁신도시에서 개최했다.

한 관심 덕분에 전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금융중심지 지정 협력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

해서는 이전 금융기관의 협력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이전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 인프라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서난이 도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집중 남자 포함해야”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 26세 이하 모두 포함 확대 조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지만 예방접종으로 관련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지원 대상은 12세~17세 여성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난이 도의원은 국비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18세~26세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과 12세~26세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자궁경부암 환자 중 2~30대의 청년층이 40% 이상을



서난이 도의원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린 남성환자의 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필수예방접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매년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26세 이하 여성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지원대상을 26세 이하 도민 전체로 규정한 것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초이다.

끝으로 서 의원은 “비록 지원의 시급성 때문에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먼저 남성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부차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에 26세 이하 모든 여성과 남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조례제정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도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사업’ 본격 추진

매개모기 감시 강화 예방접종·야외활동 시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이 일본뇌염 주요 매개종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감시를 위한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제3급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발령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완주군 상관면 소재 축사에서 매주 2회 모기를 채집해 작은빨간집모기의 출현 여부 및 개체 밀도를 조사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축사·물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릴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발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악화돼 치명적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20~30%)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재 일본뇌염은 특이적인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6월 18일 첫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모기물림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전남·제주 지역에서 이미 작은빨간집모기가 출현하면서, 지난 27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발생 밀도 분석을 강화하고, 일본뇌염 예방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라 도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면역력이 약한 생후 12개월 ~ 만 12세 아동은 국가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등 방지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럼피스킨 예방 총력...45만2천 마리 대상 집중

전북도, 한달간 집중 완료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452,000마리를 대상으로 한 1월부터 오는 30일까지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고창(12건), 부안(1건), 임실(1건) 등 총 14건의 럼피스킨이 발생해 1,050두가 살처분되는 피해를 입었다.

럼피스킨은 호흡곤란(파리·모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본격적인 곤충 활동 시기인 4월 전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접종은 농가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50두 이상 전업농은 4월 14일까지 농가에서 직접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4월 30일까지 공수의

가 접종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럼피스킨 백신은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접종을 해야하므로, 시군 및 공수의를 대상으로 올바른 접종 방법을 교육했다.

또 각 농가에서도 정확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해 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매년 자체 예산 5억 여원을 투입해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해 백신접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모든 농가에서 빠짐없이 접종을 완료해 달라”며 “곤충 방제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역 치안 강화’ 실무협의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 실무협의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31일 논의했다.

실무협의에는 '지역안전지수인 각 시도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총 6개 유형 향상 추진.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협력,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시 별도 방문교육을 도에서 진행하는 등의 7개 안건이 다뤄졌다.

이날 전북자치도, 전북경찰청,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경찰 개요를 살펴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7조에 의해 지난 2021년 7월 1일 전국 시행됐다.

자치경찰 지휘체계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뉘지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지역안 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교통사고 분야와 범죄 분야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시책 홍보와 체험버스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보이스피싱 예방 협업 방안 발굴과 홍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청소년 등 맞춤형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등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용 차량 지원 방안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 제작 예산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신일섭 사무국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분양문의 063)450-9000 → 내선번호 2번

KIP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폐지천사’ 홍경식씨, 산불 이재민에 양말 기부

전주이든치과·Y식자재
마트 모악로점 등 개인
단체 기부 참여 잇달아

해마다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기부를 실천한 전북자치도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80대 ‘폐지천사’가 이번 경북 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또 한번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엔 큰 선물은 아니지만 양말이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홍경식 할아버지다. 그는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산불 피해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양말 1000켤레(1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물품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주시 자매도시인 안동시 이재민과 산불진화로 고생하는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홍경식씨는 “산불 피해에 대한 뉴스에서 양말 등의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복지재단으로 바로 연락했다”면서 “작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항상 값진 나눔을 해주시는 홍경식 어르신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드립니다”면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경식씨 외에도 전주이든치과, 국제와이즈맨완산클럽, 하나양말, Y식



전북자치도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80대 ‘폐지천사’가 이번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또 한번 기부에 동참했다.

자재마트 모악로점 등 전주시 단체들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자매도시 안동시에 밥차 지원

지난달 27~29일까지
250명에 식사 제공
구호품 등 다각적 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대규모 산불 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한 자매도시인 경북 안동시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밥차와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준비중이다.

실제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진) 주관으로 이동급식차량 2대와 승합차량 1대 등 총 3대의 차량과 푸드팀, 센터 직원 등 총 10명을 안동시 산불피해 현장에 파견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이동급식차량(밥차)을 활용해 총 77기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자매도시 전주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밥차는 안동시 대피소로 지정된 안동 용산초등학교(경북 안동시 경동로 900)를 찾아 이재민 25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또한 안동시의 이재민 지원과 산

불 진화 현장에 필요한 구호물품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호성전주병원은 소방관용 양말 500켤레와 속옷 1000벌, 여성용 생활복 바지 300벌 등 1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전주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주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도 수건 6000벌 등 3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부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지난 1999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관계를 이어온 전주시와 안동시의 지속적인 우호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안동시도 지난 2016년 전주 지역에 폭설이 내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설차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전주시도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물품을 제작해 안동시에 전달하는 등 양 도시는 자매도시로써 꾸준히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 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도교육청, 마이스산업 활성화·미래교육 실현 맞손

교육·문화·산업 발전도모
학생들에 혁신적 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와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조성 중인 전주시와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에 힘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컨벤션센터 건립에 앞서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뜻을 모아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향후 조성되는 전

주컨벤션센터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교육과 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역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네트워크 공유 및 관련 국내·외 행사 공동 유치 노력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 △기타 지역사회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교육분야 특화마이스 콘텐츠 개발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는 전북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컨벤션센터 시설을 우선 제공하고, 도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 의 컨벤션센터 활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내 미래교육캠퍼스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교육·문화행사 공동 유치와 미래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전시컨벤션센터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산업, 문화를 잇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컨벤션센터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캠퍼스와 연계해 학생들의 마이스 분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완주 시티투어’ 새단장 후 이달부터 본격 운영

매주 화·금요일마다 진행
계절별 코스 다양화
양시군 관광 활성화 기대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대표관광지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새단장을 마치고 이달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운영된다.

전주시는 전주·완주의 관광객 유치 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주·완주 시티투어’를 올해는 계절별·테마별 코스를 다양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올해 ‘전주·완주 시티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이달 코스는 매주 화요일과 금



요일에 운영되며, 전주수목원과 한지 박물관, 구이저수지 둘레길 벚꽃코스, 대한민국의술테마박물관을 여행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재근 기자

“전주·완주 시티투어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양 시군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평가 방식 직접 수행 전환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평가 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전환기로 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맡겨왔던 민간위탁사업 평가방식을 전주시 직접 평가로 전환하는 ‘2025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평가방식 전환 배경은 외부 용역기관을 통한 평가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위탁사무별 고유한 특성 및 전주시의 정책방향을 깊이 있게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구성될 평가단은 단순한 실적평가를 넘어 위탁사무별 특성화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위탁사무감독부서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평가에 입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 전환은 단순한 평가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성희롱·성폭력 신고·대응체계 강화

전북자치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실천의지를 다지는 한편 신고 및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임원진과 각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결의식’을 열고, 선언문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실효성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신고 및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체계를 더욱 철저히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참석자들은 다짐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성희롱과 성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공단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한준호 의원 “광역버스포함 대중교통 확대 이어갈 것”

전북자치도 출신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 을)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고양시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7602번 광역버스가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7602번 버스는 인구규모 대비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를 거쳐 영등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초 10대를 투입해 일일 40회 운행으로 계획된 해당 노선은 주민 탑승수요 및 지역현황 등을 고려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한준호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1대를 증차하여 운행횟수가 일일 46회로 늘어났다.

/정재근 기자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원 메가쇼서 2억 성과

도·바이오진흥원, 24개 기업과 메가쇼 '전북공동관' 운영
소비자 피드백 수집 등 마케팅...전북 제품 전국 홍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메가쇼 시즌1'에 참가해 수도권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바이오진흥원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판로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번 '2025 수원 메가쇼 시즌1'에서는 도내 전통식품 및 해양수산식품 기업 24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다양한 소비자 체험 행사와 시식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현장 판매실적 약 2억 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참가기업들은 현장에 서 자사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소비자

피드백을 수집하는 등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미식 삼시세끼' 감성테마와 '갓 만든 신선함!,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맛!'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북 고유의 맛과 품질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농수산물기업의 우수성과 매력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본 제품 부스가 아닌 전북의 개성을 담았다.

행사에 참가한 진안 기업 '참식품'은 "전북공동관이라는 행태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며, 실무매로 이어지는 고객이 많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며 "소비자와 직접 접점의 기회를 앞으로도 자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메가쇼 시즌1'에 참가해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사진=바이오진흥원>

익산 소재 '에스시디디'는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 제품이 가진 '갓 만든 신선함'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며 "특히 젊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향후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미 원장은 "전북의 맛과 정체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전시는 소비자와 바이어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기업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지난 2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배계섭 안전이사가 충남 아산시 재보궐 선거 시설의 전기설비 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재보궐선거 현장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내일 진행될 재보궐선거 시설 1,800여 곳의 안전점검을 지난달 3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투·개표시 정전 등 전기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설비와 부하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에는 배계섭 안전이사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사전투표

소(탕정면 행정복지센터)와 아산시 개표소(이순신병상장제육교) 등을 방문해 직접 전기설비 안전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지난달부터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개표일에는 전국 40여 곳의 개표소에 현장 대기인력을 배치해 전기사고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올 상반기 신입직원 168명 공개 채용

직무능력기술서 최초 도입...사회형평채용 64명 별도 선발
경력개발·사내공모제 도입으로 조직 전문성 제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025년 상반기 신입직원 168명 공개 채용 계획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6월 20일 발표되고 6월 30일 입용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는 공단 누리집(www.nps.or.kr)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공단은 올해 서류전형에서 직무능력기술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필기시험에는 공단 직무와 연계된 과목의 비중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 직무수행능력 면접을 통해 직무관

련 경험을 평가하는 등 채용절차 전 과정에서 직무역량 검증을 철저히 한 직무중심 채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형평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18명, 취업지원대상자 25명, 고졸자 21명 등 총 64명을 별도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서류전형 가점 부여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기존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에서 '보호시설 퇴소자로서 만 34세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직무중심 채용은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무중심 인사 중

합계획' 일환이다.

공단은 2024년 조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전환을 목표로 채용·경력개발·교육·진보·배치·승진·평가 등 인사제도 전반을 포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직무중심 채용으로 선발된 신입직원은 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통해 개인별 자기주도적 경력목표 경로를 설계하고, 역량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공단은 사내공모제도(Job posting)를 도입해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개인이 보유한 역량을 연결해 직원을 적소적재에 배치함으로써 조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직무중심 인사 종합계획'에 따라 공단은 1~2급 직급별 역량모델을

직무별 역량모델로 개선한다.

공단은 사내공모제도(Job posting)를 통해 분부 부서장을 포함한 핵심직무에 36명을 선발해 올해 1월 1일자로 배치했다.

또한, 앞으로도 직무와 인사관리 시스템 연계 등 지속해서 직무중심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올해 채용에서 처음 도입하는 직무능력기술서와 직무수행능력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실질적인 직무수행 역량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용 이후에도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신입직원이 전문 연금인으로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경제사업 시너지협의회 구축...협업체계 강화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도내 9개 계열사와 함께 전북농협경제사업 시너지협의회를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과 농업소득 3,000만 원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

난달 27일 다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계열사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전략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농협 경제사업 시너지협의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부를 중심으로 '농협유통, 농협사료, 남해화학, 목우촌, 농협캐미컬, 농우바이오, 농협물류, 농협에코아그로' 등 9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어린이집, 교육행사 수익 발전후원금 쾌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대병원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시장 놀이와 무인판매대운영 등 교육행사를 통한 수익 150만 원을 병원 발전 후원금으로 지난달 31일에 전달했다.

전북대병원 어린이집은 전북대병원 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로 지난 2017년 3월 24일 개원에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올해 1월 영유아, 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한 아나바

다 시장놀이 및 무인판매대 운영 등 어린이집 내 교육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다. 특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지역료체계를 지키고 있는 병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전달됐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쓴 정성어린 손편지가 함께 전달돼 누적된 피로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북대병원의 구성원들에게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됐다.

전달식은 전북대병원 직장어린이집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이상목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소은 대외협력홍보부실장, 어린이집 최영숙 원장 등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와 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후원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아 감사장도 함께 아

이들이 위한 문구용품을 증정했다.

/김영태 기자

북전주농협, '조합원 소통의 날' 좌담회 성료...농협 사업 개선 논의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결산 운영의 공개 좌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좌담회는 지난달 27일과 28일 2일간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본 행사는 '조합원 소통의 날'이란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각 영농회별로 총 4회,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는 2024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2025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합원이 자유로운 발언이 진행됐다.

특히 이자리 통해 잘한 점은 칭찬하



북전주농협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결산 운영의 공개 좌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사진=북전주농협>

고, 미흡한 점은 짚어주며 북전주농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토론의 시간으

로 이어졌다.

북전주농협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농협 전 사업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기존 담당직원이 마을별로 출장을 나가 실시하는 좌담회에서는 일정상 전체 마을에 참석할 수가 없어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좌담회를 실시하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좋다"며 "이런 조합원들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조합원이 잘 사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목련회, 나무심기 봉사활동...편백나무 300주 식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전북생명의숲(이사장 박해영)과 함께 전북대학교 학술림 일원에서 제1회 '쓰담쓰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지난달 31일 실시했다.

전북은행 여직원으로 구성된 목련회는 지역사회 선한영향력 확산에 앞장서고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고 연중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공감하고, 환경보호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목련회는 일상에서 나무심기 활동과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는 전북생명의숲과 함께 전북대학교 학술림 일원에서 제1회 '쓰담쓰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지난달 31일 실시했다. <사진=전북은행>

기부에 손쉽게 재미있게 참여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1인당 나무구입비용 1만

원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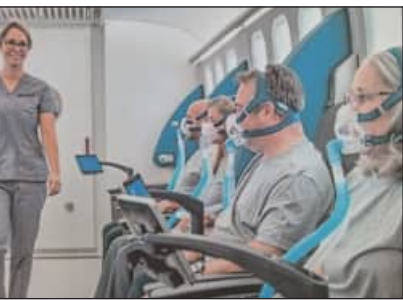
또 목련회 회원 및 자녀 40여명은 편백나무 3~4년생 300주 등을 직접 심고 식재한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과정을 지켜보기로 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생명의숲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희망을 심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 함께 해 준 목련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태희 회장은 "올해도 다양한 주제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메디오투한방병원, 산불 진압대원 무료 산소치료 지원



전주 메디오투 한방병원은 최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불발은 대형산불 진압을 위해 뛰어난 지역민들의 많은 피해를 위해 발빠른 무료치료를 제공하며 많은 갈채를 받고 있다.

메디오투 병원은 전주 송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번 고압산소 무료 치료자 대상자로는 산불 진압에 투입된 전 국민 누구나이다.

전주 메디오투 한방병원(원장 박영근)은 전국 대형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피해주민, 자원봉사원' 위해 4월 한 달 간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는 고압산소 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메디오투 한방병원은 호남 최대의 다인용 고압산소챔버(14인용) 운영 해오며, 일산화탄소중독 등 많은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이다.

박영근 원장은 "산불 진압에 나선 지역주민이나 소방관, 의용소방대, 관련 공무원 등이 일산화탄소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건강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고압산소치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서순창농업협동조합장 설득론

익산시,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응원한다. 시는 '2025년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동아리를 오는 7일 까지 모집한다.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문화·예술·자기계발·봉사·공익·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심사를 통해 7개 팀을 선정해 동아리당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지원금은 모임비·강사비·홍보비·인쇄비 등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동아리는 익산시 또는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4월 7일까지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담당자 전자우편(cuj660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불법소각·미세먼지 저감 기대

정읍시가 농촌 지역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이후 발생하는 가지, 고춧대, 콩대 등을 태우는 대신, 파쇄 처리하도록 유도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사업의 실행 주체로 정읍시농촌지도자연합회를 선정하고, 지난달 28일 실무 교육을 마쳤다. 본격적인 현장 처리는 이달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가의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과 맞물려 지역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굵기 3cm 이하의 영농부산물을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아둔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제80회 식목일 철길숲 조성 나무심기

군산시는 도시바람길숲(철길숲) 일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철길숲 1·2구간 일원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사정삼거리~옛 군산 화물역까지 총길이 2.6km의 철도 유휴부지 구간이다. 시는 나무 심기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밀접한 도심 속의 철길숲 조성지를 이번 식목일 장소로 선정했다.

지난 28일 열린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시민원, 산림조합장 김성현, 임업후계자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소나무, 무궁화, 아생화(송엽국, 홍설, 백문동, 옥잠화) 등 6,500여 본을 심었다. 특히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한수된 수목을 기부자가 직접 심도록 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나무를 심은 기부자들은 "내가 기증한 나무를 내가 직접 심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나무들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나눔의 가치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입을 모아 소감을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평가 4년 연속 우수

도내 유일 연속 선정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2020·2022·2023·2024) 우수기관의 자리를 지켰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평가 안함)

행정안전부는 매년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이행 성과와 체감도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등 총 5개 분야, 1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함께 심사했다. 평가 상위 30%인 광역 5곳과 기초자치단체 68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정읍시>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적극행정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사례 홍보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

졌으며, 기관장의 추진력과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도내 유일 4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해 더욱 살기 좋은 정읍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4월부터 SOS 틈새 돌봄 보육

평일 야간·주말 휴일 운영

군산시는 긴급보육 수요 증가에 맞춰 취·양육 부담 경감 및 틈새 보육 강화를 위한 'SOS 틈새 돌봄 보육'을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SOS 틈새 돌봄 보육'은 부모의 야근, 출장, 병원 이용 등으로 인해 평일 늦은 저녁이나 주말 휴일에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로 자녀를 맡기는 서비스다.

기존 운영됐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2개소 16개 반으로 가장 보육을 하는 부모 급여 및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대상이고 평일(09:00~18:00)에만 운영됐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되는 'SOS 틈새 돌봄 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용 시간도 평일 야간(18:00~22:00), 휴일보육(09:00~18:00)까지 제공해 이용 시간도 한층 완화되었다.

이용 대상은 6개월~만 6세 미만 연령

의 가장 보육 및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이다. 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운영기관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은 평일 야간반(꿈동산어린이집, 서희어린이집) 휴일 보육반(토마토어린이집, 풍경채어린이집) 총 4개 기관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비로 운영되며, 4월부터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배움의 문 활짝...성인문해교육 공모 선정

평생학습 국비 5,700만 확보

기초·디지털 문해 교육 확대

익산시가 시민들의 문해력 격차를 해소해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교육부 주관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초문해, 디지털문해, 생활문해 등 3개 부문에서 국비 5,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 교육인 '한글 기초'와 '초등·중학 학력 인정 과정'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활용법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문해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생활문해 교육 부문에는 '생활 속 영어마스터'과정이 개설돼 알파벳부터 단어의 소리 발음(파닉스)까지 배울 수 있는 기초 영어 교육을 제공한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 단어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평생학습관 문해교육센터(063-859-582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제 문해교육은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꼭 필요한 실생활 능력을 갖추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민의 학습 수요를 반영하고, 성인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소성면 산불' 이재민에 온정의 손길

농협 등 후원 생필품 기부

지난달 25일 고창군 성내면에서 발생해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까지 번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정읍시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료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읍산림조합, 전북농협중앙회, 참좋은푸드마켓, 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한마을복지센터, 정읍자원봉사센터, 국화회관, 농협 정읍출장소, 전북은행 정읍출장소, 황도현농협 농가주부모임, 후암농장, 수자원공사 정읍지사, 소성면 이장협의회, 청소년봉사단, 손재주봉사단, 소성교당, 미션이네 식당, 민주당 읍면동협의회, 소성면 김영사·김진기 이장 등 다수의 단체와 개인이 정성어린 물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또한 정읍연합나우회와 정읍농협을 시작으로 한우협회, 한돈협회, 오리협회, 육계협회, 흑염소협회 등 축산 관련 단체들의 기부 문의도 이어지며 이재



민을 향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읍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역재해구조 통제본부는 피해 당일부터 현장을 지키며 이재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있다. 임시 거주시설 운영, 의료·육계협회, 흑염소협회 등 축산 관련 단체들의 기부 문의도 이어지며 이재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는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지역이 본래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복구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모집

최대 1,080만 원·이자 수령

근로활동 3년간 유지 조건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3년이 지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적립된 근로

소득세 장려금 720만 원을 합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시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취약 가구의 경제적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고용임금 확인서 등)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년 동안 3회 진행되며, 1차 모집은 4월 1일~22일이다. 이후 2차 7월 1일~22일, 3차 10월 1일~24일 순으로 이어진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유학생 정착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착착'

익산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교육·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31일 원광보건대학교 보건의료 분야 외국인 유학생 23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한국어 교육은 주 2회(화·목), 회당 2시간씩 총 48시간 진행되며, 지역 사회 적응을 돕고자 생활밀착형 회화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익산 주요 명소를 탐방하는 시티투어가 운영됐다. 유학생들은 고스락, 이상한교도소(교도소 세트장), 미륵사지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를

방문하며 익산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익산정착 의지를 높이고자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교육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해 익산시, 원광대학교, 익산교육지원청이 함께 설립한 협력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정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위해 군산시는 10억, 농협 등 시중은행(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6개 사, 총 10억을 출연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약 12.5배인 25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접수는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

되며,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의 소상공인이다.

자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용자 받을 수 있다.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또한 시는 대출 기간 3년 동안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1.7% 이상을 초과하면 이차보전으로 5%의 이자를 지원한다. 가령 소상공인이 5%의 이자로 대출을 받으면, 시는 자부담 1.7%를 제외한 3.3%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시는 이차보전 정책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힘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공유재산 심의회 개좌·감면 등 17건 처리

정읍시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달 28일 '2025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사용료 감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유효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과 더불어민주당,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회는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확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까지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토지·건물의 취득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한 안건 가운데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월 열리는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문화산단 선정 기업·주민 ‘반색’

완주산단 ‘업그레이드’로 신규 산단과의 시너지 기대

완주군이 전국에서 단 3곳을 선정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포함되며 기업을 포함한 주민들이 크게 반색하고 있다. 수소특화국가산단 선정, 10만 인구 달성, 테크노밸리 제2산단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선도 산단까지 파내면서 지역경제에 훈풍이 계속 불고 있다.

문화선도 산업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지원부, 국토교통부 부처 합동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완주군은 완주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됐다.

완주산단은 1994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현대자동차, KCC, LS엔트론, 한솔케

미칼 등 35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 8,97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산단을 비롯해 농공단지, 과학산단, 테크노밸리 1, 2단계 등 370만 평의 산단이 집적화돼 있는 유일무이한 곳으로 주거지역도 함께 연결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선정으로 완주군의 경제 촉진 완주산단이 크게 업그레이드될 예정으로 신규 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인근 둔산지구 거주 여건도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문화재단 협력, 기업 공조 등 공모 전략을 진두지휘했다.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PT발표에는

정철우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직접 나섰고, 문성철 완주부군수도 동행해 힘을 보탰다. 현대차 관계자도 참석해 질의응답에 응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외에도 전북특자도, 완주군의회, 안호영 국회의원 등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이번 정부지원으로 완주산단은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수소특화국가산단과 연계해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군은 문화선도 산단 성공을 위해 민·관·산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융합협의체를 이미 구성 완료했으며, 산단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이주갑의원에 이어 전원이 윤대통령 파면 촉구 릴레이 단식을 선언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尹대통령 파면’ 릴레이 단식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이주갑 의원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됨에 따라, 군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오전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에 완주군의회 군의원들은 단식 농성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익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군의원들은 “이주갑 의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완주군의회는 끝까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역시 국민과 함께 싸울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익식 의장은 “이주갑 의원의 단식 농성은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완주군의회는 그 결단을 이어받아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슬로건 전국민 뜻 담는다

순창군, 14일까지 공모전 전통·현대적 감각 발굴

순창군이 ‘장 담그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순창장류축제의 정체성을 담아낼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천년 전통의 발효 이해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순창장류축제의 특별한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오는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나이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순창장류축제의 역사성과 전통 장류문화의 가치, 축제의 즐거움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20자 이내의 슬로건으로, 참가 희망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순창장류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순창군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순창장류축제의 정체성을 담아낼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순창군>

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심사를 통해 총 5편이 선정되며,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전 참여 방법 및 일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sunchang.go.kr) 또

는 순창장류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순창군 문화관광과(063-650-1624)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순창장류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장류 축제로서, 매년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행사가 열려 많은 방문객들에게 전통 장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농기계 임대 지원 확대…영농부담 경감

상위 30위 기종 임대료 조정

남원시에서 주력산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또다시 농업인들을 위해 조력에 나섰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건수 상위 30위 기종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임대료 조정을 시행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전면 적용에 따라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굴삭기 등 상위 30위 기종 임대료를 제한한 것이다. 인상액이 큰 일부 기종(과수농기계)의 경우 단계적 조정 협의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논타작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품 파종기, 품 탈곡기 등 4종 21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안전교육 및 현장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실무, 음면별 교육, 귀농인 대상 교육을 연 4회 2,500명 대상으로 진행한다. 농업용 드론 및 소형 특수 농기계 또한 면허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인기가 유지되고 있다. 2024년도 임대건수는 25,947건으로 작년보다 6.1% 증가했으며, 운송건수는 949건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평가에서는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중학생 로컬푸드 아침밥 지원사업 확대

용진중 이어 고산중도 지원

완주군이 중학생 아침밥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달 31일 완주군은 용진중학교, 고산중학교, 용진농협,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함께 중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학교 아침결식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용진중학교에서 진행된 아침결식개선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에는 고산중학교가 추가로 신청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일부터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아침간편식이 제공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아침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분담한다.

군은 사업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용진중학교와 고산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용진농협은 신선한 식재료 공급 및 아침 간편식을 제조하고,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아침 간편식을 학교에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내나라 여행박람회’서 지역 관광자원 홍보



순창군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 SETEC 전시장에서 열린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여행을 PLAY, 지역을 REPLAY’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순창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 특색이 담긴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의 대표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한편, 순창 전통 발효식품과 건강한 먹거리 등도 함께 선보여 ‘건강한 여행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히,군은 특산물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체험형 홍보에 나섰다. 그 중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서울시 예비 귀농귀촌 상담 홍보 프로그램 진행

완주군이 서울 방대동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매거, 완주로 완주해요!’를 주제로 귀농귀촌 상담, 지원정책, 귀농귀촌 선배들의 사례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귀농귀촌 맛보기 체험부터 지역정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완주살이 교육, 귀농창업교육, 실습전문교육까지 체계적인 완주군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해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 교육생은 “귀농귀촌을 알아보던 중에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4월에 진행되는 2박 3일 교육에도 꼭 참여해 현장에서 완주를 체험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용준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완주로 귀농귀촌을 고민하던 도시민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완주형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매년 귀농귀촌 교육 및 지역탐방을 할 수 있는 2박3일 귀농귀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4월, 5월, 9월, 11월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간부공무원, 반부패·청렴 자정 결의대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간부 공무원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부 공무원 67명이 참석해 ‘반부패·청렴 결의문’에 서명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청렴한 남원을 위한 솔선수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 제공 배제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 △금품·향응·편의 등의 수수 및 요구 금지 △간부 공무원의 책임 회피·전가 금지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원시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청렴 컨설팅을 통한 제도 개선안 마련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부서별 지속적인 청렴 활동 등을 추진 중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경천 걷기대회’ 성료 경천·양지천변 봄 정취 만끽

순창군 경천면에서 지난달 29일 ‘제4회 순창군 체육회장배 경천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창군체육회(회장 손충호)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군의장과 군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군민,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봄날의 정취를 만끽했다.

벚꽃 축제장 주무대에서 시작된 걷기 행사는 경천과 양지천변을 따라 이어지는 4.5km 구간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봄의 향기를 가득 느꼈다.

걷기는 벚꽃 축제장 무대를 시작으로 경천면, 장수교, 양지교를 거쳐 순창군청 앞, 교화교를 지나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약 1시간 코스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최영일 군수가 최우선 공약으로 삼은 ‘경천과 양지천의 기억’을 직접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이번 걷기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경천과 양지천의 모습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교육 지원 18억 투입…격차 해소·경쟁력 강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필수적인 교육경비인 교육협력지구, 늘봄, 방과후프로그램지원, 기숙사 급식비 지원등 교육지원 관련 사업으로 5개분야 14개 사업에 18억 8400만원을 투입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남원교육지원청까지 지원한다.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남원교육지원청에 지역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에 370백만원 △초·고등학생까지 학력신장 및 특성학교 기능증진을 위한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348백만원 △예술고와 예체능 특기육성 프로그램에 140백만원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 등 글로벌 인재양성분야에 322백만원 △관내학교 기숙사 급식비 608백만원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설치사업 82백만원 등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정형편으로 보충학습의 기회

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하는 교육나눔바우처사업에 120백만원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지원을 통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북에서 유일하게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내 중학생 24명을 선발해 현지 가정의 흡스테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올해도 뉴질랜드 7월 ~ 8월중에 관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장수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하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탄력적 맞춤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일제접종

장수군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매개곤충 활동 전 럼피스킨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773개 농가 3만 1천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이번 접종에서 아픈소, 출생 3개월 미만 송아지, 7개월 이상 임신말기 소는 접종이 유예돼 군이 별도로 관리해 추가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50두 미만의 영세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백신은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무료로 공급한다.

소 럼피스킨은 고열, 피부 및 점막의 결절 등의 증상을 보이며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 시에는 식육 부진, 유산,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신속한 항체 형성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전염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흡연예방' 주체 창작 뮤지컬 공연 호응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부귀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을 위한 '창작 뮤지컬'공연을 실시했다.

흡연예방 창작뮤지컬은 창작극단을 초청하여 퀴즈, 상황극, 장기자랑 등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 형태로 구성돼있다.

또한 흡연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 금연 실천 방법 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춤과 노래로 이뤄진 뮤지컬로써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뮤지컬 형식이라 더 재미있었고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진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흡연 경험률 및 흡연을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 오는 5월까지 관내 초·중·고 중 신청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창작 뮤지컬을 활용한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읍에,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범사업 공모 선정 총 사업비 30억 확보 오는 2027년까지 체류 시설·치휴센터 구축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단지가 조성된 시·군에 주소나 직장을 두지 않은 시민들에게 소규모 주거시설 20동과 텃밭 및 공유텃터 등을 제공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4도 3촌(4일 도시, 3일 농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정 평가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이 고려됐으며 특히 장수군은 명확한 조성 목표와 주제로 여러 연계된 사업을 복합 추진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2025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을 투입해 장수읍 노하리 788-7번지 일원에 소규모 체류시설(33㎡) 20호와 함께 산림휴양 및 건강치유 개념을 접목한 치휴(休)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조감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도시민들의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여기에 사업부지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추가 연계사업을 추진해 휴식·레저를 위한 공원, 위계이전시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에 머물며 영농체험, 여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장수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

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원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영농 및 여가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류시설 임대대상은 '4도 3촌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민이며 임대기간은 1년으로 연간 50일 이상 방문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5 임실방문의 해’ 홍보영상 인기폭발

인스타·유튜브 등 SNS서 조회수 12만회 돌파

촌 사선대 등임실군 주요 관광지과 옥정호 벚꽃축제, 임실N페스타, 임실N치축제와 산타축제 등 사계절 축제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겨 있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댓글에는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임실!’, ‘올해 꼭 가봐야겠어요’, ‘내 고향 임실 최고’ 등 응원 댓글이 속속 올라오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과 6월 개최되는 옥정호 벚꽃축제에서 ‘임실 방문의 해’를 기념해 특별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토틸 이벤트와 SNS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임실군>

심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다양한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보다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농업인 58명에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융자금 17억·고정금리 1%

무주군이 2025년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향상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무주군은 융자금 총 17억 470만 원을

고정금리 1%(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무주군은 지난달 25일 융자 대상 농업인 58명, 농업법인 2곳을 확정했으며 1일부터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를 통해 대상자의 신용 상태 및 담보 능력을 확인한 뒤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윤순진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추진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고령

화와 농업인구 감소, 기후변화 속에서도 거뜰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이 가능해지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득농업 실현에 정책 방향을 둔 무주군은 올 한 해 농업인 역량 강화와 복지향상에 주력할 계획으로, △내·외국인 저기 인력 도입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신광재’ 산악관광진흥지구 투자유치 첫발

진안군이 작은 알프스라 불리는 백운면 ‘신광재’일원에서 추진하는 산악관광진흥지구의 민간 투자자 유치 활동에 첫발을 디뎠다.

지난달 31일 진안군에 따르면 정춘성 진안군수는 지난달 26일~27일까지 평창을 찾아 모나 옹평 임학운 대표과 직접 면담하고, 진안군의 대표 복합개발사업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에 대한 진안군의 밑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투자 유치를 위한 발품

행정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전 군수는 진안IC와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진안을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와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신광재 일원의 개발 여건과 개발 방향에 대해 공유하며, 진안군의 잠재된 개발가능 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모나 옹평 임원진은 “진안군의 잠재된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는 의미 있

는 시간이었다”며, “다시 한번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진안군의 관광개발사업이 또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안군의 지역인구소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악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사진=진안군>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춘계대회서 이름 날려

메달 총 9개 획득	수능은 남자 81kg급에 출전해 용상 166kg, 인상 133kg, 합계 299kg을 들어올려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김요한 선수, 한국주니어 67kg급 신기록 깨기	또한, '제63회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김정민 선수는 남자 81kg급에 출전해 인상에서 130kg을 들어올리며 은메달 1개를 획득했고, 김요한 선수는 남자 67kg급에 출전해 금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의 명예를 선양한 역도선수단에게 감사하고 유동주 선수의 3관왕과 김요한 선수의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축하한다”며 “부상없이 각종 전국대회에서 선전을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의의회, 조례안 심사 등 제299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의회(의장 동창욱)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진안군의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현안에 대한 군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보고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첫날인 지난달 31일 제1차 본회의의 군정 질문을 시작으로 1일까지 제2차 본회의와 소관상

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2일·3일 양일간 데미샘 자연휴양림 등 13곳의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청취할 예정이다.

동창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사진=장수군>

장수군, 청년농업인 30명 대상 AI 교육 실시

장수군은 청년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책과 역량강화를 위해 AI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농산물 판매전략과 홍보 방법을 익히고 청년농업인의 성장 기회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정보조사 및 홍보 콘텐츠 기획, 농산물

시장분석 및 판매전략, SNS 및 온라인 홍보전략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이 농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유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산불피해 복원 최선··재진화 요소 제거

무주군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산불이 발생했던 부남면 피해지역 일대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피해지역은 부남면 대소리 일대 산불영향 지역 포함 93ha로 지난달 30일까지 인차 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 등 하루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잔불 확인 등 재진화 위험 요소들을 제거했다.

산불 발생 지역은 인공조림 등을 통해 복원에 힘쓰는 한편,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예상되는 곳을 찾기 우기 전 응급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부남면 산불 시에도 황인홍 무

주군수 지휘하에 3일간 간 공무원 344명과 진화대 104명 등이 산불 투입했으며 소방과 경찰 인력까지 총 7백여 명이 진화에 동참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섭게 번지는 불길을 잡기까지 내내 가슴을 졸여내려 했다”라며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무원들과 전복도를 비롯한 소방과 군부대, 경찰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의 헌신이 있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와 안도를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 6일 요천 둔지에서 '벚꽃 버스킹'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예술감독 김중희)이 오는 6일 오후 3시, 봄의 정취가 가득한 남원 요천 둔지 십자정 일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봄맞이 수시공연 〈벚꽃 버스킹〉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따뜻한 봄날,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음악을 통해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남원의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해 음악을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청소년들의 맑고 감미로운 하모니가 봄의 정취와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봄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음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년 합창단의 감미로운 선율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우리들연합의원·유한회사 옥산, 군산 흥남동에 사랑의 백미 기탁

훈훈한 봄바람과 함께 흥남동에 사랑의 기부 행렬이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흥남동행정복지센터는 우리들연합의원(원장 고광환)과 유한회사 옥산(대표 문환열)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550kg을 기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들연합의원 고광환 원장은 "병원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내방하고 있어 그분들께 보답할 방법을 찾던 중,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백미 10kg 50포를 기탁했다.

백미 10kg 50포를 전달한 옥산 문환열 대표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것 보답하는 의미에서 작은 기부를 결정했다. 흥남동에 거주하는 취약 세대에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 시장·군수, 산불 이재민에 성금 전달

“영남의 아픔, 호남이 함께 나눕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들이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을 익산시장)는 31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상생의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호남과 영남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이고 국가적 재난 앞에 더 이상 지역은 경계가 될 수 없다”며 “지역을 초월한 협력과 나눔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현을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너울회 회원들, 영양군 산불위로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28일 김제시 너울회 회원들이 영양군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회장 이만취, 총무 오연수, 재무 김황중이 참석해 100만원을 선포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들은 영양군 산불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새벽부터 너울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이다.

너울회 회원은 “우리 이웃인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소식에 마음이 아팠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전북 고향사랑기부금 쾌척

전북자치도에 2천만 기부 한도 상향후 첫 고액 기부

전북자치도는 31일 서울에 위치한 중앙협력본부에서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병오 회장의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한도 상향 이후 전북자치도에서 처음 이뤄진 고액 기부 사례이다.

최 회장은 전북지역과도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 2005년 전주대학교

에서 강연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패션학과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하고 ‘패스트트렌드센터’ 설립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졸업생 채용, 인턴십 운영, 명예박사 수여 등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해왔다.

최병오 회장은 “전북은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전주대학교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소중한 인연이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기부가 전북의 청년과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원광효도마을, 익산시 장애인 자립 후원금 기탁

익산시는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이사장 신옥순)이 ‘장애인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에 후원금 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보증금 지원 기금을 관리하는 익산시장재인 종합복지관으로 전달된 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은 자

립을 위해 주택에 입주하려는 장애인의 일시적 보증금 부담을 낮춰 원활한 주거이전을 돕기 위한 익산시 자체 사업이다. 후원금을 모아 대상자에게 최대 21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선 지원한다.

신옥순 이사장은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봄맞아마을시민 텃밭 3개소 개장

완주군이 봉동·용진·이서에 소재한 마을·시민텃밭 3개소를 지난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있다.

군은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총 3개소(12,168㎡)의 텃밭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335세대에게 분양을 마쳤다. 마을텃밭 1개소는 완주군민을 위한 것으로 봉동읍 낙정마을에

마련됐으며, 도시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분양하는 시민텃밭 1개소는 전주에서 가까운 용진읍 두덕마을에, 나머지 1개소는 이서면 대농마을에 2024년 신규 조성해 올해 분양했다.

직접 모종 작업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어 정서적 힐링,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평가가 많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임점숙 죽향동장, 어르신 카페문화체험 DAY 운영

남원시 죽향동장(임점숙)은 지난달부터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페문화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이 행사는 풍년제와 하정동거피(대표 이기연)의 후원으로 평소 카페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함으로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카페체험은 월 1회 진행되며, 늦은 오후 시간대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카페를 체험하며 차와 대화를 즐기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남원=정하복 기자

■ [부음]

양덕례(94세)씨 별세 주경한(전 대상그룹 상무이사), 주영로(주)뉴트리셀바이오 대표 모친상·임연선(전라일보 국장) 한신(익산2공산수소충전소)병모상

빈소: 전북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월 2일(수) 오전 7시30분
장지: 진안군 부귀면 선영하
연락처: 010-3684-9299

토지구입자금 임대인대출

·임업경영 또는 임산물생산을 목적으로 자기사업장 마련에 필요한 토지구입자금

- ▶대출대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중 농신보 신용보증서 발급가능한자
- ▶대출한도: 소요자금(토지매매대금 중 잔금기준)의 80% 이내
- ▶지원대상토지: 임업경영 또는 임산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부지(임야, 전, 답 등)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가능

개인사업자 대박대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대출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대출한도: 감가 및 시세 대비 최고 80% 이내
- ▶지원대상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임야, 주택, 상가, 공장, 햇살론보증서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출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대출한도: 최고1억
- ▶금리: 2%~2.77%

산림사업융합자금

- ▶대출대상: 임업인
- ▶대출한도: 최고3억
- ▶금리: 1%~3%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로 신뢰받는 SJ 장수군산림조합

■ 조합원 가입안내

해당구역 안에 주소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해당구역 안에주소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조합원 가입혜택

당기순이익 발생시 배당금 지급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선거권 의결권을 통한 직접적인 조합운영 참여

■ 조합원 가입방법

신분증사본, 임야대장 또는 임야주소

항상우리장수군산림조합은 임산물생산자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55633 장수군 장수를 준비길9
T: 063) 351-5030
F: 063) 351-5035

〈一事一言〉



바티칸의 소리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라’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로마 시간으로 3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담화문 형식으로 진술하게 밝혔다.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발탁되었고, 2022년 5월 29일 한국인으로서 네 번째 추기경에 임명된 분이다. 담화문은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 수도자,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동교 여러분!” 인사로 시작된다. 한국 가톨릭에 보내는 편지를 넘어 한반도 안팎 전 세계 동포들에게 바치는 공개편지 성격의 담화문을 유 추기경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고국에 전달했다.

유흥식 추기경의 담화문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성직자 개인 입장이 아니라, 교황청 즉 바티칸 시국의 장관 중 한 사람으로서 발표한 것이다. 교황청 소속 장관이 교황 의중에 관계없거나 교황청 입장과 반대되거나 동떨어진 의견을 공개편지로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유 추기경의 담화문은 교황의 의중에 깊이 연결되고, 교황청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평안하십니까?” 유 추기경의 담화문 첫 인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안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와 가까운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사회 지도층과 종교계의 많은 분이 저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비상계엄후의 우리나라의 무질서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저의 솔직한 의견을 표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 추기경의 솔직한 의견을 기대했고, 유 추기경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말하고 있다.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우선 소개했다. 교황은 끊임없이 넓은 마음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고, 서로 존중하는 삶과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촉구하였다.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 사람은 평화로운 시절에도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문제보다 구조적으로 가난하고 힘겨운 삶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들에 관한 관심과 보살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른 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유 추기경은 “지난해 말 고국에서 벌어진 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 추기경의 그런 참담함은 1976년 고국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군사쿠데타와 그 독재정권 동안 3만여 명이 학살된 쓰라린 역사를 겪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국가적 비극으로 치닫는 일은 일단 멈추었고, 수많은 국민이 추위를 뚫고 광장과 거리로 나와 함께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는 소

식을 들었습니다”라고 유 추기경은 회상한다.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와 광장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유 추기경은 치하하고 있다.

“별써 시간은 흑한을 지나 3월 하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느냐는 유 추기경의 반문은, 내 생각에,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상식과 양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최후 보루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상식과 양심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좋은 사회입니다.” 법이 인간 사회의 최후 보루라면, 상식과 양심은 인간 사회의 최초 보루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양심이라는 말이 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미 법에만 저속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마음을 넘어, 법을 가법계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가법계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우선 지적해야 옳다.

“누구보다 정의와 양심에 먼저 물어야 하는 사회 지도층이 법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란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는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라고 유 추기경은 말한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이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판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률적 판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의와 양심의 소리만 듣는다면 해도, 벌써 판결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은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만 경청하라는 말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1. 헌법이 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2. 빨리 판결하라. 3.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들은 하느님 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을 것임을 잊지 마시라.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

전북자치도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도내 이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금융중심지 개발과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등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노력은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북도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법률 개정이나 금융감독 체계 내에서의 독자적인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 전북은 2019년 이후 꾸준히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하며 금융특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금융기관들이 전주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정착하려면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금융기관 전용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미래는 디지털화

에 달려 있으며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하고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기관과 인재들이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 주거,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현재 전북도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국제학교 유치, 고급 주거단지 조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전문가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특화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홍보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대외 홍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니와 같은 국제금융 포럼과 글로벌 금융 리더들을 초청하는 행사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전북자치도의 금융산업 육성 노력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확대, 핀테크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브랜드 구축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대복사 철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남원시 남원시 대복사길 61 (왕정동)

▲오늘의시

사월의 시 / 이해인

꽃 무더기 세상을 삼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오만가지 색색의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양 활짝들
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새삼스레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한 맑이고,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적이며,
꽃들 가득한 사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눈이 젖무르도록
이 봄을 느끼며
가슴 터지도록
이 봄을 느끼며

두발 부르트도록
꽃길 걸어볼랍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4월이 문을 엽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완산지국 010-7247-3947
연호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고창지국 010-2258-3734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색깔있는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HU

百人百色

백 인 백 색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

내인생의 COLOR를 찾는 곳!

입/학/상/담 1588-9779

벚꽃의 향연, 정읍에서 피어나는~ 낭만

“내장사 가는 벚꽃길 어쩌다 한순간 나타나는, 판 세상 보이는 날은 우리,
여기서 쪼끔만 더 머물다 가자...”- 황지우 ‘여기서 더 머물고 가고 싶다’ 중



바야흐로 벚꽃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연분홍 꽃이 따뜻한 봄바람에 흩날리는 어느 하루, 세상 근심은 저만치 밀쳐두고 하루쯤 그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싶다.

아마 시인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주한 걸음 잠시 멈추고 벚꽃 그늘에 앉아보라고 채근한다.

벚꽃은 기온 차이, 강수량과 일조량, 벚나무 품종, 주변 환경에 따라 피는 시기는 달라도 우리나라 어느 한 곳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매년 봄이면 크고 작은 벚꽃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열린다. 정읍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3월 말 4월 초면 벚꽃로,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한바탕 화려한 벚꽃축제가 펼쳐진다.

엿이 눈에 띈다. 황가람과 김용임, 카르디오, 정슬, 선우혜경, 나미에.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황가람이다. 그는 음원 차트 역주행 중인 ‘중고 신인’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리메이크 싱글 ‘나는 만년불’이 뒤늦게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주목받고 있다.

2025 정읍 벚꽃축제 4일 시작
문화·예술·힐링·먹거리 한가득
황가람·김용임 등 화려한 라인업

11일~12일 정다운 벚꽃 주막

힐링해봄·건강해봄·행복해봄 존으로 축제 ‘종성’

힐링해봄존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연분홍빛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체험과 정읍의 건강한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요가와 심잉볼, 꽃차를 이용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몸과 마음에 기운을 북돋워 줄 건강한 밥상과 지황도 맛볼 수 있다.

건강해봄존은 정읍벚꽃축제에서만 먹고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이다. 벚꽃 아이스크림과 솜사탕, 7~80년대 의상을 빌려주는 의상실, 나들이 나온 아이와 부모를 위한 놀이마당이 갖춰진다. 또 신기하고 신나는 비눗방울 체험프로그램인 ‘꽃잎은 비눗방울’도 진행된다.

차없는 거리, 인생샷 포토존...행복한 정읍의 봄

주말인 5일과 6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샘골다리에서 달하다리 1.4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벚꽃로 도로만 통제, 교량 통행은 가능), 행사장 곳곳에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한다.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썩썩 또 썩썩’과 행운의 벚꽃을 잡아라와 축제장 곳곳에 있는 힌트를 찾아 스마트폰으로 풀어내면 선물을 주는 ‘모바일 선물찾기’도 운영한다.

재즈와 블루스 함께하는 친환경축제

축제 기간 특별무대에서는 재즈밴드 튠어라운드와 재즈보컬 애쉬의 ‘벚꽃 재즈’, 최향석과 신촌블루스의 ‘벚꽃 블루스’ 공연도 펼쳐진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에 걸맞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아양교와 정주교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벚꽃 플로깅도 진행한다.

11일부터 12일까지 ‘정다운 벚꽃 주막’

이어 샘고을정다운 상권 활성화 일환 벚꽃축제에 이어 샘고을정다운상권(샘고을시장, 중앙로, 우암로, 새암로)활성화를 위한 ‘정다운 벚꽃주막’이 오는 11

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주최·주관, 장소는 샘고을시장 평화주차장이다. 먹거리와 특화음식·안주 부스를 운영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낭만벚꽃, 낭만정읍...정읍벚꽃축제
이달 4일 시작

올해 벚꽃축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산림청이 발표한 ‘2025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근거로 이 기간 절정으로 치닫는 정읍벚꽃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축제 슬로건(slogan)은 ‘낭만벚꽃, 낭만정읍’이다. 정읍천과 벚꽃로 일원 아름다운 벚꽃과 최근 인기 키워드인 ‘웰니스’를 연계하여 아름다움과 쉼,

낭만이 있는 축제로 꾸민다는 기획이다. 프로그램도 이에 맞게 구성했고, 특히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축제로서의 정체성도 한층 강화했다. 축제 무대는 샘골다리에서 정동교 구간, 주행사장은 정주교와 초산교 사이에 있는 어린이축구장 특별무대로 구성된다.

개막식 4일 저녁 7시, 황가람·김용임 등 화려한 라인업
축제를 알리는 개막식은 오는 4일 저녁 7시다. 우선, 개막공연의 화려한 라인

낭만 벚꽃, 낭만 정읍
2025 정읍 벚꽃 축제
2025. 4. 4. (금) ~ 6. (일) |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2025. 4. 4. (금) 19:00 ~

황가람 김용임 선우혜경 나미에

정슬 카르디오

정읍시

진안농협 하나로마트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농산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정품 · 정량 ☒ 안전제품 공급 ☒ 유통기한 보장제

NH NongHyup 신속하고 친절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정육, 야채, 과일, 수산 (도, 소매)
쌀, 잡곡, 베이커리 생활용품 일체

결제방법: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배달신청: (063) 433-1022

찾아오시는 길

전주방면
진안방면
무주방면
진안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진안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시간 오전 08:30 ~ 저녁 09:00
대표전화 [063] 433-1022 정육코너 [063] 430-3655 수산코너 [063] 430-3656 베이커리 [063] 430-3658

everyday Fresh day

진안농협 하나로마트